

PEOPLE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부모와 아이 건강한 관계는 공감·경청이 핵심”

보성군, 오은영 박사 초청 특강...군민 500여명 참석 상담 사례 바탕 조언 등 궁금증 해소로 공감대 형성

보성군은 최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 대표 유아·심리 전문가 오은영 박사를 초청해 ‘제371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은 부모와 자녀 간의 공감 대화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예약이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당일 행사장에는 500여명의 군민이 참석해 좌석을 가득 메우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남에서 처음 열린 오은영 박사 초청 특강에 많은 군민이 강연장을 찾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조언에 큰 공감을 보였다.

오 박사는 “부모와 아이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공감과 경청이 핵심이다”며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오 박사가 사전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직접 선정해 정성껏 답변하며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참석 한 학부모는 “평소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웠는데, 오늘 강연을 통해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할지 방향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보성군은 최근 오은영 박사 초청 ‘제371회 보성자치포럼’을 개최했다.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특강이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강연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71회를 맞은 보성자치포럼은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과 배움의 장으로 꾸준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조상래 곡성군수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조상래 곡성군수가 최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주관으로 시작됐다.

조상래 군수는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 이후에는 다음 참여자로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과 장세일 영광군수를 지목해 동참을 요청했다.

조상래 군수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과 출생기반수당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물론 청년기반수당을 지급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돕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인구문제 해결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군민 소통을 통해 희망찬 곡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장세일 영광군수, 영양도시락 지원 현장 방문

영광군은 최근 장세일 군수가 최근 2025년 영광형 통합돌봄사업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최근 2025년 영광형 통합돌봄사업으로 추진 중인 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

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사업은 병원(시설) 퇴원자,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등 영양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3회 밥, 국, 반찬(5종) 그리고 간식을 구성해 대상자의 질관과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식, 당노식, 저염식 등 맞춤형 영양식을 제공한다.

장세일 군수는 가정을 방문해 도시락을 직접 전달하며 안부 확인과 건강 상태를 살폈다.

장세일 군수는 “따뜻한 봄을 맞아 어르신들의 영양 균형을 맞추 수 있는 든든한 한끼 도시락을 직접 드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양질의 영양도시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2025년 전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공모 선정되면서 군 자체 예산으로 진행 중인 맞춤형 영양도시락 지원사업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아 준비 예산을 절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전남도는 도시민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5~27일까지 곡성과 화순에서 선배 귀농인과의 대화, 현장 견학 등 ‘2025년 제1기 전남도 귀농산어촌 맛보기’ 현장 체험 교육을 했다.

전남도, 귀농산어촌 맛보기 현장체험

곡성·화순서 선배 정착인과 소통 등 교육 호응

전남도는 도시민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5~27일까지 곡성과 화순에서 선배 귀농인과의 대화, 현장 견학 등 ‘2025년 제1기 전남도 귀농산어촌 맛보기’ 현장 체험 교육을 했다.

교육에 참여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예비 귀농산어촌인 30명은 곡성 귀농인의 블루베리농장 현장 견학, 선배 정착인과 소통의 시간, 강정 및 두부 만들기 체험, 화순 고안들 문화탐방 등으로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했다.

특히 곡성으로 귀농해 유럽 상추를 재배하는 이

수경 대표의 귀농 과정, 영농작물 선정 기준, 재배 기술과 판로 과정, 정작 노하우 등 경험을 토대로 귀농생활에 대한 현실적 조언을 해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박희경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전남 맛보기 교육이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전남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남이 귀농귀촌의 최적지로 자리잡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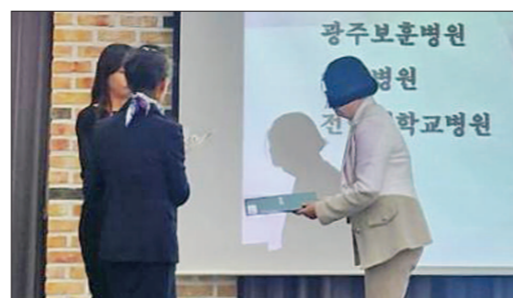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조선간호대, 광주시간호사회 선정 ‘우수기관’ 표창

조선간호대학교(총장 박명희)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개최된 광주시간호사회 제36회 정기총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조선간호대는 대한간호협회 광주시간호사회의 주력사업인 간호법 제정,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대장정 및 ‘안전도시 광주’ 만들기 캠페인 등의 간호협회 정책과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선간호대는 지난 2023년부터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구현과 지역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응급구조, 노인간호, 정신과적 응



급간호 분야의 특화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소외층과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gwangnam.co.kr

담양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자원봉사자 교육

40명 대상...기본소양·심폐소생술 등

담양군은 최근 군청 식영정실에서 자원봉사자 40명을 대상으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자원봉사자 교육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체전 개요, 자원봉사자의 역할·자세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소양 교육과 담양 소방서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포함한 자원봉사자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담양 개최 종목은 보디빌딩과 자전거로 오는 4월 26~27일까지 담양문화회관, 예곡농공단지 일원 금성산 일원에 서 열린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LG화학, ‘섬섬 동행 여수’ 봉사

LG화학이 2026 여수 세계 삼박막회를 앞두고 섬 주민들과 동행을 이어가고 있어 귀감을 사고 있다.

27일 LG화학 여수공장에 따르면 최근 2000만원 상당의 ‘섬섬 동행 여수’ 물품 지원 전달식을 열었다.

경로당에 화장실 안전 손잡이, 온열매트, 이불, 쌀 등을 후원하고 초등학교에는 교육용 전자기기를 지원한다.

섬섬 동행 여수는 지난해 시작한 임직원 재능기부형 섬마을 봉사를 확대한 정주여건 개선 후원 활동이다.

봉사단은 월호도부터 개도, 소두라도, 나발도 등 9개 섬을 돌며 노후 등기구·콘서트 교재 등 봉사활동 물품 전달 예정이다.

여수공장 이현규 주재 임원은 “섬박막회가 열리는 내년까지 섬마을을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지역 사회와 동행하면서 박막막 성공 개최도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지적장애인 성인 주·아간보호 서비스=월·금·오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 (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성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환영. 문의 (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운세 (음력 2월 29일)

48년생 말을 잘못 사용하면 손해 볼다
60년생 부동산 거래는 단념하라
72년생 원하던 일은 기회가 찾아 온다
84년생 방법을 달리하다보면 해결된다
96년생 친구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

51년생 순식간에 상황이 뒤 바뀔 수도 있다
63년생 남을 시키는 것보다는 직접 하라
75년생 수고로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
87년생 재물을 얻는 길함이 있으나
99년생 친구 일에 동조한다면 낭패

54년생 마음의 병은 오래간다
66년생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78년생 예상보다 큰 규모로 진행된다
90년생 사람의 의문을 받아 들어라

57년생 배우자는 마음을 알지 못한다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81년생 일이 효율을 맞게 된다
93년생 만나는 사람이더 유리하다

49년생 흥정을 잘 붙인다면 사례가 따른다
61년생 지금 거래는 이뤄지지 어렵다
73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85년생 문서를 주고 받을 좋은 운
97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날

52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미련없이 철화하라
64년생 미룰 수 있는 출장은 미루라
76년생 영향을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지겠다
88년생 일이 많아지자 마음은 편안하다

55년생 부동산 거래가 아니니 물러서라
67년생 부주의로 인해 금전 나가는 운
79년생 직감과 예감 빠르니 즐거운 하루
91년생 고정관념 버릴 때 창의성 발휘된다

58년생 헛된 욕심을 버려라
70년생 몸은 고달프니 얻는 게 적을 것
82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
94년생 배워두고 보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작명

50년생 현재 당면한 일부부터 처리해야 맞다
62년생 집을 지키는 것이 좋다
74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봐야 한다
86년생 거처져 모이고 금전이 생긴다
98년생 구제성이 요구된다

53년생 떠난 것에 미련을 갖지 말 것
65년생 행운의 별이 비추고 있다
77년생 돈의 운용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
89년생 직장에 열중 하라

56년생 재산에 미련을 갖지 말 것
68년생 신중해야만 대처할 수 있다
80년생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시기
92년생 마음이 조급해 진다

59년생 시련한 결말은 없고 연기된다
71년생 돈 놓고 나들이 가지 말라
83년생 손해 보지 않으려면 말을 줄여라
95년생 세심하게 살펴면서 가라